

●연중 제 29주일 강론

김근배 신부(광안성당 주임)

루카 18,9~14

깨끗한 마음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예언자’ ‘눈 먼 인도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위선에 감염된 이들의 증상은 겉과 속이 달라서 마치 연극배우처럼 가면을 쓰거나 화장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갈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 놓으면서 작은 선행이라도 하면 요란스럽게 떠듭니다. 그리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사 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증상은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백하고 열심하다고 뽐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것들은 다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사실 불결한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나아가 위선의 감염 상태가 더 깊어지면 이제 하느님까지도 공경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마태오 15:3) 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

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루카 15 ; 21)라고 한 작은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와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루카 18:38)라고 한 소경의 절박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앞에 비록 부끄러운 잘못으로 눈을 들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깨끗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겉으로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겉으로 잘못을 범했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시고 그 중에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즐겨 받아 주시지만, 어리석고 비열하고 위선적인 것을 보시면 조금도 눈을 감아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루카 18:14)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꼭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는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어른께 알리는 일은 제일 빠른 사건 수습 방법이지만 깨진 유리창은 그대로인 것과 같지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잘못을 하느님께 말씀드림으로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말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백을

하는 일이 웬지 망설여지고 두렵기도 해서 때론 은근 슬쩍 넘어갈 궁리도 하게 됩니다. 교부들이 고해성사를 “고통스러운 세례요, 일종의 정화”라고 말한 까닭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다짐하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의 계약에는 취소조항이 없습니다. 만기날짜도 휴일도 없이 늘 유효합니다. 단 한 가지, 언제든 무슨 죄이든 내 스스로 그분의 용서를 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없애는 마술이나 아픔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나은 삶을 향한 구체적인 각오를 돕습니다. 회개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거듭될 수 있다는 사실도 나아감의 길에 놓인 징검다리로 생각해보면 정말 든든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느껴지나요? 죄가 없어지는지, 별만 면하게 되는지를 셈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온 자비의 계약이 얼마나 풍성한지 새겨보기를 권합니다.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미사 안내
오늘 미사는 예수성심 성당 주임신부님이신 박민규 신부님께서 미사집전을 해 주십니다. 신부님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축하! 서부공소 창립 12주년 기념 한마당
오는 11월 05일은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창립기념 및 축하의 자리를 함께 갖고자 하오니
교우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오랫동안 뜻깊은 만남으로 정겹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각 구역장은 구역별로 개별 연락하여 그동안 소원 했던 교우들도 함께 동참 하도록 독려 바랍니다.
▶일시: 11월 04일- 미사 후
▶장소: 커뮤니티 센터(현지 성당 옆)
▶일정: 기념식 및 식사-오후 5시 15분~6시
여흥의 시간- 6시~7시
장내정리-7시~ 7시15분

◎ 바뇌기도회 모임
10월 31(수) 오후 7시30분 (윤명원 형제집)

◎ 첫영성체 교리반모집
▶대상: 3 학년 이상 어린이
▶접수마감: 10월 31일
▶수업시작:11월
▶문의: 장연희 세실리아 자매(519 580 1115)

◎ 11월 사목회의
▶일시:11월 11일 미사후
▶장소: 이동기 형제집
216 Westhollow Court/ 519 884 4870

◎ 구역모임
▶3구역 10월 28일(일) 미사후 김흥식형제집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 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 택종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클럽주소는 <http://club.catholic.or.kr/seobunews> 입니다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2007-43 2007. 10. 28. 연중 제 30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레 해 설 이명희 차주 해설 박명옥

화 답 송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어 주셨도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3) 주님을 그리나이다
봉 헌 (213) 제단에 예물 드리려 할때
성 체 (179) 주의 사랑 전하리
되 장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독	서
10월 28일	허문애	허종애
11월 4일	김직현	김인자
11월 11일	노재현	노정은

	봉	헌
10월 28일	한택종	한재희
11월 4일	허문애	허종애
11월 11일	김직현	김인자

	복	사
10월 28일	하람	지현
11월 4일	지홍	한힘
11월 11일	원영	현재

2007년 10월21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45.40
성전건립:	\$ 90.00
Evangelization of Peoples	\$75.00
Total:	\$ 910.40